

협치엔 공감대... 과제는 수두룩

여야 원내 지도부 재정비 원구성·추경 등 민감사안 산적 '공수처 출범' 대충돌 예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 수석부대표 및 대변인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준 원내대변인, 홍정민 원내대변인, 김태년 원내대표,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각 원내 지도부를 재정비 했지만 21대 국회 시작부터 민감한 사안이 많아 '협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는 나란히 취임 일성으로 '협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예방한 자리에서 "야당 원내대표가 뽑히면 제일 먼저 '협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겠다고 제안하겠다"고 말했고, 주 원내대표도 이날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막고 하는 것보다는 야당을 설득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점을 여당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저희도 현실적 의석수를 인정하고 국정협조할 것은 과감하게 하겠다"고 했다.

두 신임 원내대표 앞에는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일단 김 원내대표는 '제1과제'로 '일하는 국회법' 처리를 꺼내들었다. 상시국회시스템 등 국회 공전을 막는 장치를 먼저 마련한 뒤 여야가 각종 사안에서 이견을 조율하며 입법을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 원내대표의 '일하는 국회법' 처리 제안에 주 원내대표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다. 저희도 찬성"이라며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기구 심사권 폐지 등 각론을 놓고는 여야의 입장차가 컸던 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당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원구성 협

상을 두고는 두 원내대표 모두 대립각을 세우는 것을 경계하며 '탐색전' 중이다. 21대 국회 개원 직후 착수해야 하는 코로나19 대응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분위기다.

김 원내대표는 "3차 추경은 필연적이다. 선제적이고 속도감 있게, 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우리가 취할 당연한 조치"라며 "지금 단계의 적극적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상당한 규모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YTN에 나와 "3차 추경이 필요하다면 어떤 필요성이 있고 어느 곳에 쓸 것인지, 그리고 그 재

원은 무엇으로 마련할 것인지 정부 측 입장을 듣고 난 뒤에 필요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다소 유보하는 태도를 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두고는 가장 격렬한 충돌도 예상된다. 공수처 출범 전 국회는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일부 후속법안을 처리하고 처장 추천 절차도 밟아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당선 후 "공수처 후속법안 처리가 시급하고, 출범 관련 절차는 원내 의원, 당 지도부와 충분히 상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정경 발표 때도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일도

'될 때까지' 끈질기게 해내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도 반대에 앞장서는 등 공수처에 대한 반감이 강한 인사다. 그는 당선 후 YTN에 출연해 "공수처법은 법의 완성도가 떨어져 여러 가지 후속 입법도 필요하고, 또 공수처장을 선정하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 측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적극적 의견 개진"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20대 국회 남은 임기 중 추가 본회의 개최, 계류법안 처리 문제 역시 신임 원내지도부에게 넘겨진 숙제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민주당·시민당 합당 수순

권리당원 투표 찬성 84.1%...내일 최종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에서 비례연합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가결함에 따라 이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 12일 민주당 중앙위원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중앙위원회를 12일 개최할 예정이며 중앙위를 통해 온라인으로 최종 투표가 완료되면 시민당과 합당하는 수순 기관을 지정하게 되고, 13일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거쳐 합당 절차가 완료된다.

앞서 지난 8일 민주당 허웅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리당원 투표결과 보고'를 발표했다.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진행된 투표에는 권리당원 78만 9888명 중 22.5%(17만 7933명)가 참여했다. 이 중 찬성은 84.1%(14만 9617

명), 반대는 15.9%(2만 8316명)를 각각 기록했다고 허 대변인이 설명했다.

지난 3월 12일 시행된 비례연합정당 참여 투표와 비교하면 투표율은 8.1%포인트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허 대변인은 "지난번과 비교해 조금 다른 맥락을 나타냈지만, 합당에 대해서는 찬성으로 결론 지었다"고 설명했다.

허 대변인은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위성 교섭단체 구성 여부 등과 관계없이 합당이 추진되는지 여부에 대해 "그렇다"며 "통합당의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정당원 투표결과를 수용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통합당 움직임에) 당 지도부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지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존중해 그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

통합당, 미래한국당과 합당 주목

새 원내대표에 5선 주호영...원유철 "신속히 논의"

미래통합당이 새 원내대표에 5선이 되는 주호영(대구 수성갑·사진) 의원을 선출하는 등 원내지도부 구성을 마치면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여부도 주목된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10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주 대표와 합당 시기, 절차, 방식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만약 비상대책위원장이 새로 오면 신속히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통합당 새 원내지도부가 꾸러지면서 당 안팎의 '합당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투표로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합당"을 추진하고 있다. "무소속 당선인 4인방"(홍준표·권성동·윤상현·김태호) 영입, 3석인 국민의당과 공동 교섭단체 구성 등의 방법을 통해 20석을 만들어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오광록 기자 kroh@

에 맞는 단일대오 형성"이라며 "첫째가 미래한국당과의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미래한국당 "독자 생존권"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원 대표가 지난 8일 연례총회 비례대표 폐지를 위해 민주당과 시민당, 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2+2 회담'을 제안한 것을 두고도 합당 시기를 늦추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무소속 당선인 4인방"(홍준표·권성동·윤상현·김태호) 영입, 3석인 국민의당과 공동 교섭단체 구성 등의 방법을 통해 20석을 만들어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오광록 기자 kroh@



與, 막판 입법 드라이브... 고용 안정 다각화 검토

고용보험법 개정안·구직자 생활안정지원법 등 처리 통합당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 것을 계기로 미래통합당을 향해 본회의 개최를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 허웅정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코로나19 관련 법안 등 시급하면서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20대 국회가 조속히 본회의를 열어 마무리하

고, 유종의 미를 거뭇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용보험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법안, 공공의대 설립 법안, 출입국관리법, 학교보건법 등 코로나19 대응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n번방 후속법안, 과거사법, 제2·4·3 특별법 등도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세무사법과 교원노조법 등 헌법 불합치법

안들도 처리 대상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고용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은 문 대통령이 강조한 '고용안정망 강화'와 맞닿아 있다.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과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를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통합당과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일정을 협의하는 동시에 처리 가능한 법안을 늘리기 위한 조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문 대통령 취임 3주년 축하 메시지를 냈다.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의 3년은 실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온 여정이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계속적으로 민주정부를 이어가는 것(이) 우리 시대 최고의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의) 선한 의지가 위기 속에서 선순환을 일으켰고 앞으로의 위기도 극복하게 할 것"이라며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이라고 글을 남겼다. 청와대 대변인은 자낸 고민정 당선인은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 남은 2년은 '나라다운 나라'를 완성하고 성과로 보여드려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저소득 구직자에 월50만원' 국민취업제 논의

국회 환노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1일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저소득층 구직자에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는 '국민 취업제도'를 논의했다.

10일 국회 환노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미래통합당 김학용 의원과 여야 간사(더불어민주당 한정애·통합당 임이자 의원)들은 11일 소위에서 국민 취업제도의 기초가 되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법안은 근로 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 구직자에 대해서는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업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정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정망"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호소한 법안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의료광고심의의필 제 191202-중-102291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척추 내시경,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 무릎 인공관절, 어깨 관절경 수술

다양한 치료 경험을 통해 수술의 높은 만족을 드리려 노력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